

“서남권 대표 금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박영대 목포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총자산 2천600억 돌파
취임 6년 만에 2배 이상 성장 성과…“지역민과 상생 힘쓸 것”

“목포중앙새마을금고는 임직원의 노력과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중앙새마을금고가 박영대 이사장 취임 이후 총자산이 가파르게 상승해 주목받고 있다. 목포중앙새마을금고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자산 2천600억원을 돌파해 서남권 대표 새마을금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박영대 이사장 취임 당시 1천90억원이었던 자산을 취임 6년 만에 2배가 넘게 신장시켰다.

목포중앙새마을금고는 박 이사장의 경영 철학인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도전과 성취, 변

화와 혁신 경영을 선도해 매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목포중앙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 말 전남 서남권 새마을금고 중 최초로 자산 2천억원을 달성했다. 5월에는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을 수상했고 이후 4개월 만에 총자산 2천600억원까지 돌파했다.

지난해 말 대비 자산은 750억원 증가했으며 예수금은 500억원, 대출금은 320억원 늘었다. 9월 말 기준 14억원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성과를 이룬 것은 의미가 깊다.

목포중앙새마을금고 거래자는 3만4천11명에 달한다.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바탕을 두고 사람을 품은 따뜻한 금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마을금고는 본점 외 2개 지점(유달지점, 연동지점)을 운영 중이며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중앙새마을금고는 최근 5년간 1억원의 복지 사업비를 집행해 회원 문화복지사업 지원과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사랑 나눔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쌀 나눔 행사와 라면 지원 행

사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상생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좀도리운동에도 동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연계해 MG희망나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영대 이사장은 “힘든 시기에 고객과의 성원에 힘입어 본점을 확장·이전하게 된 만큼 보답으로 예금 특판을 통해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건전 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자산 신장을 이루며 지역민과 상생하는 대표 서민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중앙새마을금고는 지난 9월27일 목포시 백년대로 294(기동병원 사거리)로 본점을 확장 이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고객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기예금 특판을 진행해 호평받았다. /목포=정해선기자



중흥건설, 코로나19 극복 헌혈 캠페인

중흥건설은 18일 본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혈액 보유량이 3일분 수준 밖에 안되는 등 헌혈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

캠페인에는 중흥건설뿐만 아니라 남도일보 임직원들도 동참했다. 19일에는 계열사인 나주 골드레이크CC와 골드스파크&리조트 직원들도 참여할 예정이며 중흥그룹은 대한적십자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헌혈 캠페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은 “앞으로 매년 헌혈 캠페인을 통해 다른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문금주 전남도 부지사 “아버지 이어 국가에 헌신” 목포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 등 검거 두각

6·25 때 조국 수호 선진 故문태환 하사 대신 ‘무공훈장’ 수훈

문금주(사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수호한 아버지 고 문태환 하사를 대신해 18일 전남도청에서 ‘6·25 전쟁 무공훈장’을 전달받았다.

고 문태환 하사의 무공훈장은 상훈 명령이 내려진지 무려 71년 만에 고인이 하늘로 떠난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도착하게 돼 보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이 사업으로 고 문 하사의 무공훈장이 아들 문 부지사에게 도착할 수 있었다.

문금주 부지사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청천강까지 진격해 청천강 물을 마시고 작은 아버지도 참전 중 이북지역에서 전사하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아버지께서 2002년 돌아가셔서 살아생전 받지 못하신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부지사는 “뉘네게라도 나라가 잊지 않고 훈장을 전달해줘 감사드린다”며 “아버지를 이어 국가와 고향 전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정기자



이 사업으로 고 문 하사의 무공훈장이 아들 문 부지사에게 도착할 수 있었다.

문금주 부지사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청천강까지 진격해 청천강 물을 마시고 작은 아버지도 참전 중 이북지역에서 전사하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아버지께서 2002년 돌아가셔서 살아생전 받지 못하신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부지사는 “뉘네게라도 나라가 잊지 않고 훈장을 전달해줘 감사드린다”며 “아버지를 이어 국가와 고향 전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정기자

마사회 광주지사, 동구 사회복지기관 기부금 전달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지사장 정지연)는 최근 동구에 위치한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빛고을종합복지관에 전달해 달라며 기부금 1천500만원을 동구청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동구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임택 동구청장, 정지연 마사회 광주지사장, 이종석 동구노인종합복지관장, 배용태 빛고을종합복지관장,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이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키오스크 체험교실 운영과 도시락배달, 사랑의 식당 식기소독기 구입, 어르신 정보격차 해소 및 급식환경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지연 지사장은 “코로나19로 마사회가 1년 7개월 동안 경매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본사에



서 특별히 광주지사에 기부금을 배정해줘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조만간 위드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면 더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광주문화재단-유스퀘어문화관 업무협약 체결

광주문화재단과 금호고속(주) 유스퀘어문화관이 최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광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동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역 예술인 대상 유스퀘어문화관 및 야외공간 활용 적극 지원 및 협조 ▲양 기관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 공동 홍보 ▲기타 양 기관의 우호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동반성장에 필요한 공동의 노력 및 상호 지원 등이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유스퀘어문화관 공연장과 버스킹이 가능한 외부 공간 등에 재단 기획행사 및 지역 예술단체 공연을 진행한다.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



동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현철 금호고속(주) 사장은 “유스퀘어문화관 공연장과 문화 공간들이 문화재단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전남국제교육원, 원어민 일본어교사 워크숍

전남국제교육원은 18일 “최근 전남지역 원어민 일본어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원어민 일본어 보조교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남국제교육원은 매년 전남 6개 중심 고등학교(목포제일여고, 여수고, 순천고, 나주고, 광양고, 남양고)에 배치된 원어민 일본어 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습자 중심 일본어 수업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원어민 일본어 보조교사들이 협동수업 경험담을 발표·토론하며 정보를 공유



하는 시간이 됐다. /여수=김진선기자

목포경찰서 형사과가 강력범죄 검거 등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18일 “형사과가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도와 재물손괴, 테이프폭력 등 민생 치안에 직접 연결되는 범죄는 물론 강도, 마약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 4천150건을 처리하고 82명의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형사과는 범인 검거 뿐만 아니라 여죄를 밝혀내고 신변 보호 조치 등 각종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목포경찰서 강력1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건측현장에 집합해 19회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한 피의자를 4개월의 잠복수사 끝에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또한 전남경찰청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전남지역 강력·형사팀 평가에서 최고 성과를 거뒀다. 목포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사진)이 베스트프로



캡스에 선발되는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형사3팀은 올해 2분기에 영세 상인을 상대로 업무 방해를 일삼는 동네 주폭을 구속하는 등 268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송창원 목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선제적인 움직임과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시민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전남개발공사, 신안 J-BOOK 다독왕대회 시상

전남개발공사는 18일 “신안 도서지역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전자도서관(J-BOOK) 다독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전자도서관(J-BOOK)은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도서·산간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악한 독서환경을 극복하고 독서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신안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안지역 도서지역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올해 7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다독왕 대회를 개최했다.

2개월 간의 대회 기간 동안 154명의 학생이 참여해 총 3천447권의 도서 대출실적을 기록했다. 1등상 이준수(암해초 3학년), 2등상 조인우(암해초 1학년)·강하음(지도초 5학년), 3등상 김승민(암해초 6학년)·김민호(흑산초 2학년)·김민교(흑산초 2학년) 등이다. 이 밖에 20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1·2등 학생들만 초대해 간소하게 진행했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더 많은 전남지역 농·어촌 학생들에게 전자도서관(J-BOOK)을 보급해 독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LG이노텍 광주공장, 담양 고서면 ‘화분 키트’ 지원

담양군 고서면은 18일 “최근 LG이노텍 광주공장에서 사회공헌 활동인 ‘이웃사촌 플러스’의 일환으로 관내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화분 키우기 키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 플러스’는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LG이노텍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이날 광주공장은 화분키우기 키트 80개(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한강여담양군 복지담당은 “기탁받은 물품은 관내 거동 불편 어르신들과 하지 중증장애인 총 80세대에 전달되며 생활지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키트 전달과 함께 안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이노텍 광주공장 임직원은 “지원품이 어르신들과 장애인에게 코로나 블루 극복과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기자



담양 봉산면 지사협,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

담양군 봉산면은 최근 민·관 협력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진철·고진성) 위원 10명, 최은정 복지담당,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생 26명이 함께 하는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아동들과 함께 떡케이크를 만들며 아동들이 청정 지역 담양에서 생산되는 쌀과 봉산딸기, 속, 단호박이 안심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체험은 김규남 위원의 후원과 재능 기부로 이뤄졌다. 2년째 재능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김규남·권병선 부부는 지역에서 담길 떡까페와 체험관을 운영 중이며 누구나 즐기는 떡 요리 개발에 매진하면서도 주민을 위한 ‘사랑나눔가게’로서 이웃사랑 실천에도 힘쓰고 있다. /담양=정승균기자



목포시-목포과학대 ‘상생발전’ 업무협약

목포시와 목포과학대학교가 최근 목포과학대 연구관에서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김종식 시장, 이호균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양 기관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거버넌스 체계 마련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대학 육성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노력 ▲지역 정책 사업 참여·협력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지속 가능한 행·재정적 상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식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목포과학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균 총장은 “목포가 국내 최고의 문화도시, 관광거점도시로의 성장하는데 기여할 인재 배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인사

전남도교육청 ◇5급 승진
▲총무과 김근철 ▲감사관 김진수 ▲화순 오성초 김영애 ▲신안 해양과학고 김현아 ▲감사관 노용근 ▲화순 이양고 송선화 ▲재정과 이소향 ▲행정과 임성규 ▲담양 수북중 임은숙 ▲고흥 영주고 허행숙

결혼

●황현구·신정아씨 장남 두진균, 진규하(프레이 안 광주전남본부 국장)·심이화씨 장녀 리나양=11월13일(토) 오후 2시30분 서울 뮤지엄웨딩홀(전경기념관) 1층 평화홀, 피로연 10월23일(토) 오후 5시30분-8시 여수 소호동 디오션호텔 1층 에메랄드홀.